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강재학(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하규수(호서대학교)**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 C.E.O.에게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 역량 가운데에서도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매개 효과를 통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정부주도의 창업장려분위기에 따라 대학 교과과정에서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행사와 함께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고, 학계에서도 기업가정신과 창업기회인식 혹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셀프리더십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소재 4개 대학교의 학생들로부터 받은 설문지 320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과 창업기회인식 그리고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대학 창업 교육 커리큘럼 설계에 있어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셀프리더십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셀프리더십, 기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창업의지

1. 서론

최근 국내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중소기업청·교육부 등 정부기관의 주도로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h(2013)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창업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추세이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과 대만, 싱가포르 등 중소기업 발전국가들도 21세기 들어서 창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내 국외의 창업 장려 분위기에 따라, 최근 각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고취를 위한 기업가정신 사전전,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며, 기업가정신 과목 및 창업관련 과목들을 학기중 개설하여 소속 대학생들에게 수강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Kwon(2009)은 각 대학교에서 대학생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셀프리더십을 포함한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셀프리더십에 대하여 Ho, Nesbit,

Jepsen & Demirian(2012)는 개인이 자신의 더 높은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 영향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Yoo(2014)도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기업가정신은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주요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반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에 대해 셀프리더십을 주요인으로 하여 연관성을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4년 현재 ‘창업학과’를 도입한 대학교가 20여개에 달하는 등¹⁾, 창업 관련 개설 교과목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미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만이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하고, 창업에 대한 관심이 아직 높지 않은 학생들은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과목을 수강신청을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대학생들 전체적으로 ‘리더십’과 관련된 과목의 수강신청에는 아무 거부감 없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 주저자,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hspartner@naver.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ksh@hoseo.edu

· 투고일: 2015-04-29 · 수정일: 2015-07-08 · 게재확정일: 2015-07-20

1) 박찬수(2014, June 15). 뉴스1, 대학 창업휴학제·창업학과 설치 확산 추세, Retrieved from <http://news1.kr/articles/?1723132>

볼 때, 직접적인 기업가정신 혹은 창업 교과목의 개설 이외에도 셀프리더십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기존에 창업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높이고 창업의지를 고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상관성과 영향력을 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함양을 통한 대학 내 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의지 고취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셀프리더십

Lee(2014)는 과거 Manz(1986)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종합 정리하여 셀프리더십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통제 및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즉, 셀프리더십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외부환경에 굴복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기업의 창업자가 C.E.O.가 되어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창업자가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셀프리더십이 선행되어야만 팔로우어 즉, 조직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한 직장이나 한 조직 내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언젠가 자기 스스로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자신만의 기업을 창업하고 싶어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셀프리더십은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의 역량 및 창업의지 등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셀프리더십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주로 조직행동에 있어서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와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혹은 개인행동에 있어서의 진로준비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등에 국한되어 왔다.

Nam & Kim(2011)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 시기의 셀프리더십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Park(2013)은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창업의지와 연관시킨 국내 첫 연구를 수행한 Yoo(2014)는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 창업자 1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통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창업관련연구에 셀프리더십을 접목시키는 뜻깊은 결과를 남겼다.

2.1.1 행동중심적 전략

Kim(2007)은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략을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고, 그들이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인식하여 성공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는데, 행동중심적 전략의 6가지 하위요인은 아래와 같이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관찰, 단서전략, 연습, 자기징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목표설정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단기 혹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데, Lee(2014)는 이때 목표는 가급적 구체적이거나 노력만 하면 달성 가능한 적절히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둘째, 자기보상(self-reward)은 내가 목표로 삼은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였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뜻하는데, Lee(2014)는 이러한 자기보상이 스스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차후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자기관찰은 내가 현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실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지를 꼼꼼히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Kim(2007)은 이러한 자기관찰이 사람들이 목표한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첫 단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넷째, 단서전략은 내가 목표를 향해 일을 진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 혹은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메모한다던가 휴대폰의 일정기능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수단 즉 단서를 이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Kim(2007)은 이러한 단서전략이 긍정적인 단서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최상의 환경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다섯째, 연습(rehearsal)은 중요한 일이나 도전적인 일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연습하거나 최소한 머뭇속으로라도 연습해보는 것을 말하는데, Lee(2014)는 이러한 연습 행동이 실수를 줄이고 문제점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여섯째, 자기징계란 내가 추진했던 과제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내가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 행동을 하였을 때, 나 스스로에게 일정한 징계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Ahn(2009)은 지나친 비판은 오히려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2.1.2 자연보상적 전략

자연보상적 전략이란 목표를 달성하였느냐 하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정속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아내고 누리는 전략을 뜻한다. Koh, Song & Jang(2011)은 이러한 자연보상적 전략을 통해 내적인 보상을 스스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유능감과 자기결정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Lee(2013)에 따르면 자연적 보상 전략을 동기부여와 함께 내적 보상의 수준 증가를 위한 개설계로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연보상적 전략의 하위요인으로 첫째 동기부여, 둘째 내적 보상을 설정

하였다.

2.1.3 건설적사고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이란 내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본다든지, 중요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마음속 응원을 하는 등 자신의 생각 패턴과 습관 등을 건설적으로 바꾸는 전략을 말하는데, Koh, Song & Jang(2011)은 자신과의 긍정적 대화 등 건설적사고 전략을 통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Lee(2013)에 따르면 건설적사고 전략을 성공적 성과의 가시화(visualizing successful performance), 자기대화(self-talk), 신념과 가정에 대한 평가(evaluating beliefs and assumptions)로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건설적사고 전략의 하위요인으로 첫째, 성과가시화, 둘째, 자기대화, 셋째, 신념평가를 설정하였다.

2.2 기업가정신

최근 정부주도의 창업 육성 정책 확산과 함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관심 및 교육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대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들이 국내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창업가정신으로도 불리우는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대표적 학자로는 미국의 경제학자 Schumpeter(1936)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기술혁신을 강조함과 동시에,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업가를 혁신자로 보았다. Schumpeter(1934) 이후로 Timmons(1994)는 기회에 초점을 두고 기업가정신을 바라보았고, Morris & Lewis(1995)에 이르러서는 혁신성(innovation), 진취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이 세가지 속성을 기업가적 태도와 행동의 근간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듯 여러 학자들이 각자 저마다의 관점으로 바라본 다양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기업가정신이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기업가적 마인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가정신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혁신 혹은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었는데, 최근 정부주도의 창업활성화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창업기회인식, 창업성공가능성, 창업교육 등 창업관련 다양한 변수들과의 연관성 연구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Jeong, Kwon & Bahn(2007)은 국내의 1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간접적으로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Kang & Lee(2012)는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515개의 표본을 사용하여,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제공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Kim(2013)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각각의 변수들이 모두 창업기회인식과 성취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

업기회인식과 성취욕구는 각각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Yoo(2013)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122부를 실증분석하여, 창업자의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이 창업 성공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2.2.1 혁신성

Noh(2011)는 혁신성을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기업가의 성향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을 뛰어난 창의성으로 끊임없이 일상의 관찰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기업가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었다.

2.2.2 진취성

Noh(2011)는 진취성을 기업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쟁자들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변화에 앞서 행동하는 속성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진취성을 과거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역량에 주안점을 두었다.

2.2.3 위험감수성

Cho(2013)는 위험감수성을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러한 위험을 높은 성과에 대한 기대로써 감수하려는 자세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험감수성을 불확실한 상황속에서도 과감히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었다.

2.3 창업기회인식

창업기회인식이란 기업가 스스로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Choi(2014)는 창업기회인식을 기업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면서, 창업기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창업에 대한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Kim(2013)은 창업가가 좋은 창업기회를 인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지된 창업기회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가에 있다고 보았다.

창업기회인식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1인창조기업 혹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기회인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및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Choi(2014)는 대구·경북지역 7개 대학 외식 전공 대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은 창업기회인식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Jang(2013)은 국내 53개 대학의 재학생들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의 창업지원서비스요인 중 연구개발이전, 창업컨설팅, 창업문화가 대학생의 창업기회 인식

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3)은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창업기회 인식과 성취욕구가 각각 창업의지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창업의지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란 미래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열정을 뜻하는데, Yoon(2012)은 창업의지와 실제 창업과의 관계는 의도가 행동을 예측한다는 사회심리학에서의 의도적 행동모델에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의 흐름에 대하여 Eum(2008)은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초기 창업자의 개인특성, 심리특성, 배경특성 등이 창업의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던 것이 최근에는 점차 동기부여, 기술력, 비전과 목표, 창업교육으로까지 연구의 초점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 대상도 대학생, 직장인, 시니어 등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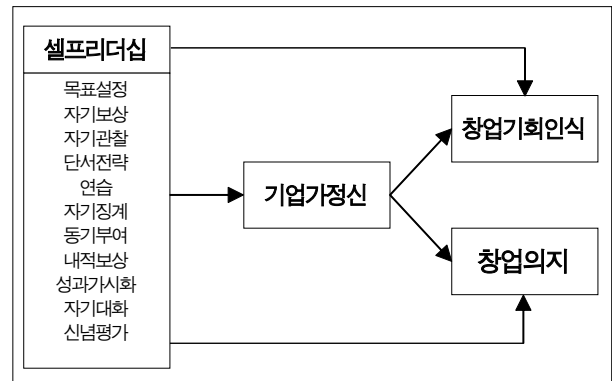
Jung(2012)은 경남지역 대학생 중 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와 창업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교육 횟수와 창업교육 경험 여부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Jang(2013)은 국내 53개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창업기회가 창업의도에 정(+)³⁾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Choi(2013)는 직장인 3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심리적으로 중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도에 정(+)⁴⁾의 영향을 미치고, 환경적으로 중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어,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Kim, Lee & Ko (2013)는 중소기업청 주관 시니어창업역량 교육프로그램의 수행기관인 H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 4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결과 시니어창업역량 교육프로그램이 시니어들의 창업의지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내용과 창업교육환경이 창업교육만족과 창업의지에 정(+)⁵⁾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oon(2011)과 Yu(2014)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Eum(2008)은 기업가정신 교육 후 학생들의 창업의지는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최근 Yoo(2014)는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창업자 195명을 실증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매개적인 역할을 통하여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연구가설

기존에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Yoo(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여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그간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은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은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은 진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4-1.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4-2.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 기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셀프 리더십은 Lee(2013), Lee(2015)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에 관한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가정신은 Oh(2014), Song(2011)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혁신성과 위험감수성, 진취성에 관한 1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는 Lee(2013), Yoon(2012), Kim(2013)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 학년, 월평균 용돈 및 가구소득과 함께 창업교육경험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관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은 서울 거주 대학교 네 곳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31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조사결과 총 320부의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er.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은 카이저 규칙(Kaiser rule)이 있는 직각회전방식인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하였고,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와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셀프 리더십, 기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의 차이는

t-test와 ANOVA(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3.5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남성 209명(65.3%), 여성 111명(34.7%)이었고, 연령은 20세미만 59명(18.4%), 20~25세 미만 214명(66.9%), 25세 이상 47명(14.7%)이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145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1학년 45명(14.1%), 3학년 42명(13.1%), 4학년 88명(27.5%)이었으며, 월평균 용돈은 10~30만원 미만 120명(37.5%), 30~50만원미만 109명(34.0%)으로 70% 이상이 10~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 113명(35.4%), 300~500만원미만 115명(35.9%), 500~700만원 미만 57명(17.8%), 700만원 이상 35명(10.9%)이었으며, 창업교육경험은 없다 221명(69.1%), 있다 99명(30.9%)으로서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09	65.3
	여성	111	34.7
연령	20세미만	59	18.4
	20-25세미만	214	66.9
	25세 이상	47	14.7
학년	1학년	45	14.1
	2학년	145	45.3
	3학년	42	13.1
	4학년	88	27.5
월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55	17.2
	10-30만원 미만	120	37.5
	30-50만원 미만	109	34.0
	50만원 이상	36	11.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13	35.4
	300-500만원 미만	115	35.9
	500-700만원 미만	57	17.8
	700만원 이상	35	10.9
창업교육 경험	없다	221	69.1
	있다	99	30.9
합계	320	100.0	

IV. 연구 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4.1.1 셀프 리더십

셀프리더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셀프리더십은 1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67.699%였다. 동일요인으로 묶인 문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요인 1은 자기징계, 요인 2는 동기부여, 요인 3은 자기관찰, 요인 4는 성과가시화, 요인 5는 내적보상, 요인 6은 신념평가, 요인 7은

연습, 요인 8은 자기보상, 요인 9는 목표설정, 요인 10은 단서 전략, 요인 11은 자기대화라고 명명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요인값 0.5이하인 3개 문항(목표설정 1문항, 자기보상 1문항, 단서전략 1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들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자기징계 0.867, 동기부여 0.752, 자기관찰 0.750, 성과가시화 0.789, 내적보상 0.733, 신념평가 0.703, 연습 0.757, 자기보상 0.736, 목표설정 0.734, 단서전략 0.764, 자기대화 0.749로서 0.7 이상의 값을 보여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2> 셀프리더십의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	신뢰 계수
자기 징계	I-22	.861	3.041	8.220	.867
	I-21	.846			
	I-23	.815			
	I-20	.799			
동기 부여	I-25	.744	2.528	15.053	.752
	I-24	.682			
	I-26	.677			
	I-28	.581			
자기 관찰	I-11	.773	2.469	21.727	.750
	I-10	.693			
	I-12	.595			
	I-9	.577			
성과 가시화	I-32	.787	2.351	28.082	.789
	I-34	.774			
	I-33	.690			
내적 보상	I-30	.781	2.341	34.418	.733
	I-29	.688			
	I-27	.623			
	I-31	.574			
신념 평가	I-38	.761	2.282	40.585	.703
	I-39	.689			
	I-40	.663			
	I-37	.622			
연습	I-19	.754	2.218	46.581	.757
	I-18	.729			
	I-17	.696			
자기 보상	I-5	.868	2.067	52.167	.736
	I-6	.792			
	I-7	.608			
목표 설정	I-2	.722	1.992	57.551	.734
	I-1	.668			
	I-3	.543			
단서 전략	I-13	.786	1.895	62.674	.764
	I-15	.773			
	I-14	.512			
자기 대화	I-36	.794	1.859	67.699	.749
	I-35	.752			

4.1.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64.534%였다. 요인 1은 혁신성, 요인 2는 위험감수성, 요인 3은 진취성으로 명명하였고, 분석과정에서 요인값 0.5이하를 보인 진

취성에 관한 2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가 혁신성 0.811, 위험감수성 0.761, 진취성 0.680으로서 수용할만한 신뢰수준이었다.

<표 3> 기업가정신의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	신뢰 계수
혁신성	II-4	.852	2.536	25.360	.811
	II-2	.841			
	II-3	.836			
	II-1	.524			
위험 감수성	II-10	.831	2.450	49.861	.761
	II-9	.763			
	II-11	.759			
	II-12	.611			
진취성	II-8	.844	1.467	64.534	.680
	II-7	.803			

4.1.3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의 총 분산은 71.392%였다. 요인 1은 창업의지, 요인 2는 창업기회인식이라 명명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요인값 0.5 이상을 보여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Cronbach's α 계수는 창업의지 0.885, 창업기회인식 0.830으로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신뢰 계수
창업 의지	III-6	.849	3.103	38.793	.885
	III-8	.838			
	III-5	.791			
	III-7	.766			
창업 기회 인식	III-2	.848	2.608	71.392	.830
	III-1	.830			
	III-3	.693			
	III-4	.601			

4.2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업가정신이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254-1.714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혁신성에 대해서는 셀프리더십의 동기부여, 자기관찰, 성과가시화, 내적보상, 단서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동기부여는 $t=8.013$, $p<.001$ 에서, 성과가시화는 $t=2.249$, $p<.05$ 에서, 단서전략은 $t=3.080$, $p<.01$ 에서 혁신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기관찰은 $t=-2.141$, $p<.05$ 에서, 내적보상은 $t=-2.585$, $p<.05$ 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동기부여 ($\beta=.460$)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혁신성에 대한 셀프리더십 요인의 전체 설명력(R^2)은 33.1%였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과제나 공부를 하는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고 성공적인 성과에 대해 미리 생각할 뿐 아니라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나 장치를 사용할수록 혁신성이 높아지는 반면, 과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중시할수록 혁신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혁신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동기부여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정을 중시하거나 자기점검을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위험감수성에 대해서는 셀프리더십의 동기부여와 성과가시화, 신념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동기부여는 $t=6.347$, $p<.001$ 에서, 신념평가는 $t=2.366$, $p<.05$ 에서 위험감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과가시화는 $t=-2.403$, $p<.05$ 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동기부여($\beta=.389$)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위험감수성에 대한 셀프리더십 요인의 전체 설명력(R^2)은 24.0%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신념이나 가정에 대해 미리 평가하는 건설적 사고를 지닐수록 위험감수성이 높아지는 반면, 성공적인 수행이나 성과를 미리 생각하고 상상할수록 위험감수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 성과가시화가 위험감수성에 부적 영향을 보인 것은 어떤 일이나 중요한 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진취성에 대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기대화가 $t=2.049$, $p<.05$ 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속을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자기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등 자기대화를 할수록 진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진취성에 대한 셀프리더십 요인의 전체 설명력(R^2)이 5.8%로서 낮게 나타났으므로 결과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자기대화를 제외하고는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셀프리더십이 높다고 해서 진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가설 1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에는 셀프리더십의 동기부여, 성과가시화, 단서전략이 정적인 영향을, 자기관찰과 내적보상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위험감수성에는 셀프리더십의 동기부여와 신념평가가 정적인 영향을, 성과가시화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진취성에는 셀프리더십의 자기대화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고, 가설 1-1, 1-2, 1-3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5>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β	t	P	β	t	P	β	t	P	β	t	P
자기징계	-.055	-1.052	.293	-.020	-.367	.714	.056	.894	.372			
동기부여	.460	8.013***	.000	.389	6.347***	.000	.040	.576	.565			
자기관찰	-.128	-2.141*	.033	-.063	-.994	.321	-.078	-1.087	.278			
성과가시화	.128	2.249*	.025	-.146	-2.403*	.017	-.033	-.475	.635			
내적보상	-.147	-2.585*	.010	-.038	-.635	.526	-.003	-.037	.971			
신념평가	-.056	-1.038	.300	.136	2.366*	.019	-.060	-.930	.353			
연습	.012	.212	.832	.117	1.892	.059	-.061	-.882	.379			
자기보상	.079	1.504	.134	.049	.873	.383	-.006	-.094	.925			
목표설정	.040	.658	.511	.052	.793	.428	.015	.198	.843			
단서전략	.168	3.080**	.002	-.027	-.468	.640	.046	.700	.484			
자기대화	.099	1.725	.086	.095	1.549	.122	.142	2.049*	.041			
F	13.881***			8.858***			2.818*					
R2	.331			.240			.058					
Adj.R2	.308			.213			.036					

* $p<.05$, ** $p<.01$, *** $p<.001$

4.3 기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로서, VIF값이 1.087-1.319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기회인식에 대해서는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혁신성은 $t=6.713$, $p<.001$ 에서, 위험감수성은 $t=2.236$, $p<.05$ 에서 창업기회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혁신성($\beta=.386$)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았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력(R^2)은 20.9%였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업의지에 대해서도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혁신성은 $t=5.385$, $p<.001$ 에서, 위험감수성은 $t=2.211$, $p<.05$ 에서 창업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혁신성($\beta=.318$)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았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력(R^2)은 16.7%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진취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고, 가설 2-1, 2-2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6> 기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창업기회인식			창업의지		
	β	t	P	β	t	P	β	t	P
혁신성	.386	6.713	.000***	.318	5.385	.000***			
위험감수성	.125	2.236	.026*	.127	2.211	.028*			
진취성	.008	.158	.874	.054	1.014	.312			
F	27.840***			21.125***					
R2	.209			.167					
Adj.R2	.202			.159					

4.4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VIF 값이 1.254-1.714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업기회인식에 대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기징계와 동기부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자기징계는 $t=3.408$, $p<.01$ 에서, 동기부여는 $t=3.415$, $p<.01$ 에서 창업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동기부여($\beta=.217$)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았으며, 창업기회인식에 대한 셀프리더십 요인의 전체 설명력(R^2)은 18.4%였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과제나 공부를 하는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고 과제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 자책할수록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실망, 반성으로 인해 다른 기회를 탐색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대학생들이 창업의 기회를 보다 많이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창업의지에 대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기징계와 자기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징계는 $t=2.200$, $p<.05$ 에서, 자기대화는 $t=3.436$, $p<.01$ 에서 창업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자기대화($\beta=.228$)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았으며, 창업의지에 대한 셀프리더십 요인의 전체 설명력(R^2)은 11.0%였다. 이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자기대화를 통해 힘을 줄수록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분석한 가설 3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창업기회인식에는 셀프리더십의 자기징계와 동기부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창업의지에는 셀프리더십의 자기징계와 자기대화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고, 가설 3-1, 3-2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7>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창업기회인식			창업의지		
	β	t	P	β	t	P	β	t	P
자기징계	.196	3.408	.001**	.132	2.200	.029*			
동기부여	.217	3.415	.001**	.072	1.092	.276			
자기관찰	.082	1.240	.216	.037	.533	.594			
성과가시화	.012	.193	.847	.052	.797	.426			
내적보상	-.005	-.079	.937	.010	.157	.875			
신념평가	.001	.015	.988	-.016	-.264	.792			
연습	-.117	-1.831	.068	-.073	-1.092	.276			
자기보상	.012	.205	.838	-.042	-.697	.486			
목표설정	.108	1.600	.111	.087	1.241	.216			
단서전략	.041	.677	.499	-.045	-.720	.472			
자기대화	.088	1.392	.165	.228	3.436	.001**			
F	6.314***			3.444***					
R2	.184			.110					
Adj.R2	.155			.078					

* $p<.05$, ** $p<.01$, *** $p<.001$

4.5 셀프리더십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 간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VIF 값의 경우 1.000~1.181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먼저 셀프리더십과 창업기회인식 간의 영향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Model II와 Model III에서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beta=.377$ (Sig=.000)에서 $\beta=.247$ (Sig=.000)로 변화하였고, 기업가정신은 창업기회인식에 대하여 $\beta=.333$ (Sig=.00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Model II보다 Model III에서 감소되었으므로 기업가정신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sobel test 결과에 의하면 $Z=4.805$, $p<.001$ 로서 기업가정신이 유의미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Model II와 Model III에서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beta=.273$ (Sig=.000)에서 $\beta=.139$ (Sig=.013)로 변화하였고,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대하여 $\beta=.342$ (Sig=.00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Model II보다 Model III에서 감소되었으므로 기업가정신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sobel test 결과에 의하면 $Z=4.769$, $p<.001$ 로서 기업가정신이 유의미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분석한 가설 4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때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때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4는 채택되었고, 가설 4-1과 4-2도 채택되었다.

<표 8> 셀프리더십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 간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단계	β	t	F	R ²
창업기회인식	Model I 독립변인→매개변인 셀프리더십→기업가정신	.391	7.581***	57.469***	.153
	Model II 독립변인→종속변인 셀프리더십→창업기회인식	.377	7.258***	52.682***	.142
	Model III 독립, 매개변인→종속변인 셀프리더십→창업기회인식 기업가정신→창업기회인식	.247 .333	4.627*** 6.236***	48.920***	.236
창업의지	Model I 독립변인→매개변인 셀프리더십→기업가정신	.391	7.581***	57.469***	.153
	Model II 독립변인→종속변인 셀프리더십→창업의지	.273	5.052***	25.521***	.074
	Model III 독립, 매개변인→종속변인 셀프리더십→창업의지 기업가정신→창업의지	.139 .342	2.501* 6.162***	33.228***	.173

*p<.05, ***p<.001

다음의 <표 9>는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정리한 것이며,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대해서는 셀프리더십의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영향력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셀프리더십	창업기회인식	0.391	0.130	0.521
	창업의지	0.391	0.134	0.525

V. 연구 결론 및 한계

최근 국내 국외의 창업 장려 분위기에 따라 각 대학교에서도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행사 및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과목이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교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창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목은 경영학과 학생 혹은 창업에 관심이 높은 일부 학생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 연구는 기업가에게 꼭 필요한 역량인 리더십 중에서도 최근 부각되고 있는 셀프리더십을 창업 마인드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알아보고,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하여 창업기회 인식과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과기대, 한성대, 인덕대, 서일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교의 학생들로부터 받은 설문지 320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부분적으로나마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셀프리더십을 기업가정신과 연관시켜 얻은 새로운 시도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 Kim(2013)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셋째,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던 Yoo(2014)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뒷받침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과 창업기회인식 그리고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 교육은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창업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로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만 수강하는 대학생들에게 셀프리더십 교육을 도입하여 확대한다면 이는 결국 국내 대학내의 기업가정신 확산과 창업기회인식, 더 나아가 창업의지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의 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셀프리더십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앞으로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셀프리더십 교육은 대학내에서 일반 리더십 교육내용의 한 부분으로서만 강의되고 있는 바, 향후 셀프리더십만의 독자적인 교육 콘텐츠, 더 나아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과 연계성을 강화한 교육 콘텐츠가 연구 개발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

- Ahn, S. T.(2009). *The Effect of a School Principal's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a Coach's Self 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Cho, Y. H.(2013). *Entrepreneurial spirit of the founder angel investors to evaluate the impact*,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Choi, M. C.(2014). *A Study about the Effects of Youth Business Support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Percep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 service*, Mat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Choi, Y. L.(2013).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retired office-worker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Eum, T. S.(2008). *A Effect of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and Vocational Valu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Food Service Industri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 Jang, S. G.(2013). *A study about the Effects of University's Business Support Service o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University.
- Jeong, J., Kwon, G. M. & Bahn, S. S.(2007).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Performance : The Centered on a Moderating Role of Alliance Capability between Company and Nonprofit Organization,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4), 1797-1820.
- Ho, J., Nesbit, P. L., Jepsen, D. & Demirian, S.(2012), Entending self-Leadership research to the East: Measurement equivalence of the Chinese and English versions of th MSLQ,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101-111.
- Jung, D. S.(2012). An Empirical Study on Business Start-up Education Preferences and Star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Business and Education*, 27(6), 373-394.
- Kang, S. M. & Lee, H. T.(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preneurship and Core Competencies on Firm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20(1), 1-16.
- Kim, H. M(2013). *Study of influencing effects of one-pers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o the recognition of business establishment opportunity and business establishment will*, Mat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Kim, M. J.(2007). *An Inquiry into Learner Factors influencing the Self-Leadership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Kim, M. S., Lee, J. H. & Ko, J. W.(2013). The Effectiveness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for Seniors and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3), 233-241.
- Kim, S. H. & Yoo, B. H.(2013). An Effects of Youth Founder's Entrepreneurship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677-2687.
- Koh, H. I., Song, J. S. & Jang, G. S.(2011).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Trust In Supervisor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8(1), 47-69.
- Kwon, S. Y.(2009).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elf-leadership, and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on Performanc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Master thesis, Hoseo University.
- Lee, J. H.(2013). A Study on the Ways to Vitalize Students'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63-74.
- _____ (2013). *The Influence Effects of Personal Traits, University and Social Supports on Student's Startup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 Lee, J. C.(2013).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Lee, J. W.(2015).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Lee, S. M.(2014). *The Effects of the Self-leadership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staff on Job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Manz C. C.(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 Morris, M. H. & Lewis, P. S.(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 Nam, K. Y. & K.im, K. A.(2011).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Leadership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85-113.
- Noh, B. S.(2011). *A Stud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ffect on the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Master theis, Th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Oh, S. H.(2014).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Start-up Environments on Young Adults and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Oh, Y. M.(2013).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Start-up intention*, Master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 Oh, Y. M. & Park, S. W.(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Start-up Intention,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4(2), 199-221.

- News1, *Entrepreneurship in University*, Retrieved June 15, 2014 from <http://news1.kr/articles/?1723132>
- Park, D. H.(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Daycare teachers' self-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 Schumpeter, J.(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mpeter, J. A. & Opie, R.1936).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ing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ong, J. G.(2011).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erformance for Venture Busines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Timmons, J. A. & Spinelli, S.(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Vol. 4)*, Burr Ridge, IL: Irwin.
- Yoo, B. H.(2014).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of Self-leadership on Start-up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382-1389.
- Yoon, B. J.(2011).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on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by undergraduate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Yu, M. H.(2014). *The Effect of the Entrepreneurship and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bat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f Effect of Self-Leadership by College Student on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ship

Kang, Jae-Hac*

Ha, Kyu-Soo**

Abstract

Among leadership competence essential for start-up C.E.O,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through the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ship. Under the atmosphere of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company led by the government, within the college curriculum, along with various education and events, the education about entrepreneurship is actively provided, and in academic fields, studies about entrepreneurship,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are actively performed, while there is almost no study about correlation among self-leadership,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Therefore, in this study, 320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college students from four colleges in Seoul were verifi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at first, the self-leadership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ship. Second, entrepreneurship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Third, the self-leadership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Fourth, regarded as the core of this study, in between self-leadership and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in between self-leadership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the mediate effect of entrepreneurship was shown.

According to such outcome of study, in the curriculum design of college venture education to increase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the education of entrepreneurship and active trial of self-leadership education are essential.

Keywords: Self-Leadership, Entrepreneurship,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 First Auth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at Hoseo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at Hoseo University